

2017.07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제11차 호스피스 콘서트
(Concert/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2017.6.5.)/
안양 샘 병원과 자매결연협약(MOU)
(MOU with Sam Hospital in Korea 12/6/2017)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38:2~6)

Hezekiah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the LORD, "Remember, O LORD, how I have walked before you faithfully and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have done what is good in your eyes." And Hezekiah wept bitterly.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Isaiah: "Go and tell Hezekiah,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I will add fifteen years to your life. And I will deliver you and this city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I will defend this city. (Isaiah 38:2~6)

월간 • 149호
Monthly Issue 149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자와 그의 재환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07

C · O · N · T · E · N · T · S

02 기독교 의료봉사의 요람, 안양 샘 병원

06 호스피스(SICA) 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2017년 6월 5일 한인교인이 4분 계시는 Columbia 너싱 홈에서 제11차 호스피스 콘서트를 가졌다. 콘서트에 참여하신 환우분들은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콘서트였다. 2017년 6월 12일 안양 샘 병원과 자매결연협약(MOU)을 갖게 되어 활기찬 글로벌 호스피스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진 좌측부터 박상은 대표원장, 김장대 ACC/SICA 대표, 이대희 대표이사)

기독교 의료봉사의 요람, 안양 샘 병원

기독교 의료봉사의 요람, 안양 샘 병원

효산의료재단 샘 병원은 찬 샘이 샘솟는 냉천동에서 1967년 안양지역 제1호 (종합)병원, 안양병원으로 출발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 샘 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설립 이후 오늘까지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병원의 모토와 함께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투철한 의료선교의 정신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불어 살리는 경이로운 병원을 추구하며, '생명수 사역'(H2O Ministry: Holistic Healing Mission by One thing)을 통하여 21세기 기독교 병원선교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샘병원은 안양샘병원, G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 등의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한방 협진으로 환자의 회복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가을에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이뤄진 G샘병원을 개원해 글로벌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양샘병원, G샘병원 2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안양샘병원과 G샘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기념해 보건복지부 인증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4대 암 치료 잘하는 암 특화 종합병원 G샘병원

G샘병원이 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 등 4대 암 치료를 잘하는 1등급 병원으로 평가를 받으며, 경기남부지역 암 치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폐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G샘병원은 이번 폐암 적정성평가에 앞서 대장암·위암·유방암 적정성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4대 암 치료를 잘하는 암 특화 종합병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한편, 통합 암치료와 전인치유를 지향하는 G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이번 4대 암 수술과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중증질병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 받게 됐다.

편집실 _ 시드니호스피스

**국내·해외 환우 및 가족들의 건강한 동반자 샘국제병원
맞춤형 진료서비스 “각광”**

외국인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개원한 샘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국제진료센터, 최고의 시설의 국제병동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추었다.

샘병원이 자랑하는 현대의학과 전인·통합적 치료를 접목한 특화 암치료, 1:1 맞춤형 종합검진 서비스, 난임부부 아이 소망의 꿈을 실현하는 가임센터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5년에는 법무부 지정 ‘우수 의료관광 유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또한 샘병원은 18개국 24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9개 주한외국대사관의 지정병원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위) 제11차 호스피스 콘서트 (열정적으로 하프를 연주하는 크로마 하프봉사자)

아래) 한국전통 음악과 함께 멋진 부채춤 - 김경옥(Kyungoak Kim)

샘병원, 후자이라 여성전문병원(MHF Maternity Hospital of Fujairah in UAE) 위탁 운영 계약 체결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G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이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본격 진출을 모색한다. 샘병원은 최근 UAE 후자이라의 여성전문병원인 MHF(Maternity Hospital of Fujairah in UAE)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서 샘병원은 향후 50년간 MHF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 관리 및 교육, 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편, MHF는 49년 역사를 지닌 여성전문병원으로써, 2개의 층 1000여 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왕세자를 포함한 인구의 50% 이상이 이곳 병원에서 출생할 만큼 유서 깊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샘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통일의료 비전 선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G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은 1월 7일, 개원 50주년 맞아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 올라 ‘통일의료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평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비전선포 기념 예배와 이대희 대표이사의 인사말, 샘병원 박상은 대표원장의 통일의료 비전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됐다.

특히 통일의료 비전 선포 순서에는 5개의 실천 강령을 담은 통일의료 비전 선포 시간을 가졌으며, 빈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주민을 위한 글로벌 선교 의료기관으로써의 사명과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샘병원은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희년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샘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50년사 편찬, 국제학술회의 등 각종 사업추진상황을 기획·점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정 안양샘병원, 교육수련 전국 1위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병원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한 2016 전국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는 역대 최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약 3,100여명의 전공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조사에서 안양샘병원이 1위를 기록했다.

On the occasion of the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Hosan Medical Foundation Sam Hospital (MOU) ...

Hosan Medical Foundation Sam Hospital (Anyangseam Hospital, Chi-seam Hospital, Sam Maternity Hospital, Sam Hanbang Network) Sam Hospital providing the best medical treatment with care as its mission

Hosan Medical Foundation Sam Hospital was founded in 1967, and has been pursuing the wholehearted healing of spirit and soul, not only physically treating patients based on the motto of "providing the best medical treatment with care." Sam Hospital is composed of other hospitals such as Anyangseam Hospital, Jiamseum Hospital, Sam Maternity Hospital, and Sam Hanbang Network,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peed up the recovery time of patients by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all of 2010, we are stepping up to become a global hospital by opening a hospital with state-of-the-art medical equipment and excellent medical staff. Through the H2O Ministry (Holistic Healing Mission by One thing) we are opening a new chapter in hospital mission.

Anyangseam hospital's, Chi-seam hospital's 2 period medical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certification

Anyangseam Hospital and Chi-seam Hospital obtained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in the evaluation of the 2-period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st year. The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certifies the excellence of patient safety and medical services by evaluating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s' safety and medical services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entre of Medical Institu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valuation Centre presents the Chi-seam hospital can treat 4 different types of cancers effectively

The hospital is evaluated as a first-class hospital that treats four major cancers such as stomach cancer, lung cancer, bowel cancer, and breast cancer, and has become a hub of cancer treatment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Chi-Sem Hospital recently obtained the first grade in lung cancer adequacy assessment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valuation Institute and was recognized as a hospital that is good at treating lung cancer. In particular, Chi-seam Hospital has officially proved that it is a cancer-specialized general hospital which is well-cared for in four cancer treatment, such as receiving rank 1 of bowel cancer, stomach cancer, breast cancer suitability evaluation befor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lung cancer.

Meanwhile, Chi-Seam Hospital, which is aiming for integrated cancer treatment and whole-person healing, was selected as the top agency in the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the four cancer surgeries and therapies announc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valuation Center. The ability to respond quickly to emergencies has proven to be a superior hospital.

Domestic and overseas patients with families receive personalized medical care services from Sam International Hospital

Sam International Hospital, opened in 2009 to provide professional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patients. As an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it is convenient for foreign patients as it holds international wards and guesthouses with the best facilities.

Sam Hospital is proud of modern medicine, special treatment of cancer combined with integrated treatment and comprehensive treatment, 1:1 customized comprehensive screening service. Sam Hospital is also famous for making infertile couples fertile.

In 2015, Sam Hospital wa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an 'excellent medical tourism attraction organization'.

In addition, Sam Hospital was established as a joint venture with 24 hospitals in 18 countries, while also serving as a designated hospital for 9 foreign embassies in Korea.

Sam Hospital, Fujairah Women's Hospital (MHF Maternity Hospital of Fujairah in UAE)

Hanyang Medical Foundation Sam Hospital (Anyangseam Hospital, Chi-seam Hospital, Sam Maternity Hospital, Sam Hanbang Network) seeks to ente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he core of the Middle East healthcare market.



위) 소피아 건강관리사의 지도로 암 환우와 함께 하는 요가 체조 (Yoga Rhythmic Gymnastics-Hospice Health Manager, Siphia Jeun/June 26, 2017)

아래) 2017년 6월 5일 - 암 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한 월요 중보기도회 (Intercession Prayer for cancer patients/June 5, 2017)

Sam Hospital has recently signed a consignment contract with MHF (Maternity Hospital of Fujairah in UAE), a women's specialist hospital in the latter UA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Sam Hospital will take over the entire 50-year MHF medical service, as well as hospital personnel management, education, facility expansion and remodeling.

On the other hand, the MHF is a 49-year-old maternity specialist hospital with two floors and a size of 3,300 square metres (about).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including the Prince, is known to be born in the hospital.

Sam Hospital holds 50th anniversary and announces Healthcare unification 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anyang Medical Foundation Sam Hospital (Anyangseam Hospital, Chi-seam Hospital, Sam Maternity Hospital, Sam Hanbang Network) was on the afternoon of January 7th on the afternoon of the opening of the Paju Unification Observatory in Gyeonggi Province to hold the "Unification Medical Vision Declaration Ceremony."

The ceremony was followed by a ceremony to celebrate peaceful re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greeting from CEO Lee Dae-hee, and the hospital director explained the Unification Medical Vis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declare a unified medical vision, five codes of practice were made to achieve this. We also had a meaningful time to reaffirm our mission and spirit as a global mission medical institution for North Koreans in poverty and suffering.

Meanwhile, Sam Hospital launched 'Jubilee Preparation Committee'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hospital and to set up a new vision. It plans and inspects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50th anniversary ceremony of Sam Hospital opening, 50-year history compilation.

Sam Hospital, Anyang Korea Intern Resident Association for education, training top across Korea.

Last year, the council of Korean municipal councils released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water training hospital conducted for national residents. From August 12, 2016 to September 9, 2016, the National Survey of Sui Lin Hospital conducted a survey that showed the highest response rate ever. About 3,100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Anyangseam Hospital ranked first in this survey.

History of ACC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 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 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0.6 (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부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펼치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
(재정): 송정화,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2차 어머니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성관에 명시된 Committee 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
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 를 받기로 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on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목사 대표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목사 선임, 96% 찬성)

- 2015.4.2 제2대 대표로 김장대 목사 선임(Chairperson/Public
Officer) (변종무 대표 사임)
- 2012.10.15 제1차 총회 (의장:변종무 서기: 김영일 선출)
- 2011.3.17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명칭변경(ABN 87 157 916 417)
- 2007.8.4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시작 (1회)
- 2006.10.3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실시(1회)
- 2004.7.1 소식지 출간
- 2004.1.4 한국 샘물호스피스회 시드니회로 출범(대표 변종무 목사)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 치료 자원봉사자 모집

- 암 환우의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너스름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사랑
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
(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회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처: 0405 317 843(송정화 리더) / 0430 370 191

● 제 12 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Jesmond Aged Care, 81 Albert Rd,
Strathfield, NSW
- 일시: 2017년 7월10일(월요일) 오후 2시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9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 SICA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식지 5월 2017 회계 자료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Young Lan Song	7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Mrs Kim	20	Donation	인쇄홍보비	593.2	
Sung Taek Yoon	2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80	
So Mee Kim	10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Chee Yeal Lee	50	MEMBERSHIP FEE	식대및 부식비	170.16	
Mary Chang	50	MEMBERSHIP FEE	경조비	100	
Dong Jin Lee	5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158.7	
Jung ki Mim	5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108.78	
Harp group	50	Donation	회계사. 변호사	0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water	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First aid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기타	17	
Shin kyung Ah	80	MEMBERSHIP FEE		1407.19	
Park ok bun	80	MEMBERSHIP FEE			
Ea Sun Jung	50	MEMBERSHIP FEE			
Hae sung Lee	50	MEMBERSHIP FEE			
sung sil In	10	MEMBERSHIP FEE			
Jangdae Kim	200	동산 한나회 헌신예배 사례비(Donation)			
Sydney west UBF MS KI JU CHUN	100	은 Donation			
sydneylightandsalt	300	은 Donation			
jingeun yoon BOK CHOI	100	은 Donation			
GNA Support GNA SOLUTIONS PT	100	은 Donation			
Westpac INTEREST	0.15				
수입 Total	2070.15				
*현금, 현물 도네이션					
*Jangdae Kim	15 만	한국 강사료			
*정순이 권사님	10 만원	Donation (압봉 구입)			
*변영도 장로님		카네이션 50 개 Donation			
*송영란 집사님		Hand Made cleaner(수세미) Donation(중보기도회원을 위한)			
*전 소피아집사님	사할기				

건강상식

[성서 건강학] 우울증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이사야 41:10)

우울증은 아무 이유없이 슬퍼하고 울적해지며 매사에 흥미가 없고 귀찮아하며 초조 불안 신경질 등이 심해지는 증상이다. 잘 먹지 않고 수면장애가 오기도 하며 망상적으로 각종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수술해야 할 병이나 암이 자기 병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도 신병을 비판한 우울증 환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친척 중 같은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인 원인으로 환경적 스트레스, 인격과 정신적 상처, 내성적 성격,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으로 발병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치료는 모든 정신질환 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즐거운 찬송을 자주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감동을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은 우울증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된다.

손수명 장로(동진한의원장)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7월의 여유있는 삶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한번은 열 살 된 딸이 큰 소리로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한 소년에게 막대기로 심하게 얻어맞은 딸은 화를 내며 톨스토이에게 호소했다. "저 심술꾸러기 녀석이 막대기로 나를 때렸어요. 제발 저 아이를 좀 혼내주세요" 톨스토이는 빙그레 웃으며 딸을 꼭 껴안고 속삭였다. "아빠가 그 아이를 때려주면 소년은 너와 원수가 될 텐데....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톨스토이는 햄 샌드위치를 만들어 딸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애야. 이것을 그 소년에게 갖다 주렴" 그 후 딸은 소년과 사이좋은 친구가 됐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사랑은 바윗돌 같은 마음도 녹인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삶 속에서 매일 행복을 발견한다.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 ◎ 발행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 17 110 189 115) / SICA(ABN: 87 157 916 417)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 2017년 6월 28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